

벤의 집

이 건물의 이름은 과거 영국 귀족이었던 모험가 벤 아릴슨이 살았었다고 구전된 것이 배경입니다. 목조로 된 2층 건물은 메이지 시대 말기(1868~1912)의 건축물입니다. 집의 외벽은 거의 완전히 당시 그대로 상태로 보전되어 있고 정교하게 톱니장식이 있는 처마 물당을 포함하여 외벽에는 꺼끌꺼끌한 회반죽을 발랐고 진한 갈색 목재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창에는 이목을 사로잡는 페인트가 칠해진 셔터와 창문 선반이 달려있고, 유리창은 기하학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당시에는 전형적이었던 회색 유약을 바른 일본 기와이며 입구의 포치에는 유니크하게 솟아오른 지붕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고베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통로를 따라 세워진 경계벽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벽에는 건설 중 독일에서 수입한 당시의 벽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내부는 벤 아릴슨의 컬렉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자연사 전시로 완전히 변신하였습니다. 이 전시에는 유럽의 ‘캐비닛 오브 큐리오시티(호기심의 방)’양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벤의 집은 기존의 박물관이 아닌 예술적 모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치형 내부 도어와 정교한 벽을 붙인 원래의 인테리어의 세세한 부분은 보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자연 표본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 선명한 색으로 칠한 방을 배치했습니다. 전시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붉은 벽 1층은 북극곰, 북극늑대 등이 포함된 멋진 박제 컬렉션이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빨이 달린 두개골아메리카들소이 진열되어 있고 또 다른 벽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목재 선반에는 수십권의 책, 표본, 기타 신기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2층의 중심은 파란 벽 나비의 방입니다. 각각 액자에 박제한 나비 표본들이 벽을 뒤덮고 있고 그 외 표본은 붙박이장에 놓인 유리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옆의 회색 벽의 방에는 벽에 걸린 아프리카 마스크 컬렉션이 있습니다. 또한 수십개의 큰 높이의 유리병에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선별된 조개껍질 및 기타 자연 표본과 함께 연필, 종이, 자, 은그릇, 트럼프, 기타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벤의 집은 기존의 박물관과 달리 풍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모험입니다. 벤의 집은 우로코 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